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행사 종료 이후 보도 가능(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 배포 : 2023년 11월 24일(금)

## 윤석열 대통령,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오찬」 참석

- 대통령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지지 다져 -
- 정·재계 고위급 인사도 총출동, 대한민국의 유치 의지 적극 피력 -
-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의지 선보여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24, 금)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BIE 대표 초청 오찬 - 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하여 국제박람회기구(이하 BIE) 각국 대표단들과 만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오찬은 파리에 상주하는 BIE 회원국의 대표단을 초청하여 개최한 행사로, 대한민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알리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알리기 위하여 마련됐습니다.

- ※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오찬 - 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개요
- (일시·장소) 11.24(금) 인터컨티넨탈 호텔
  - (공동 주최) 주OECD대표부, 한국국제협력단
  - (참석 대상) BIE 회원국 대표 포함 국내·외 부산 세계박람회 관련 인사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조하고 대한민국 부산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오찬장에 참석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단들을 직접 접촉하며 다시 한번 한국의 강력한 유치 의지와 비전 실현에 대한 약속을 전달했고, 재계 총수들도 오찬에 참석해 함께 코리아 원팀으로 교섭 활동을 함께 전개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온 국제기구(GGGI), 기업(SK에코플랜트) 관계자가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에 기반한 민관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대와 혁신에 기반한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11월 28일 제173차 총회까지 정부, 민간 등 모든 주체들이 ‘Korea One Team’의 기조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끝>